■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자기 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좋지 않다. 심지어 아내를 독점하겠다는 이마저도 현대적이지 못한 이기주의자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터에 기업을 독점하려는 재벌이나 권 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겠다는 독재자는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된다.

윤리는 도덕과 다르다. 도덕은 시공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나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윤리 중 윤리 라 할 수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은 낡은 세대의 가치 기준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들이 있다 해도 여전히 약속 있는 첫계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첫계명이란 으뜸 또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이다. 성경이 가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이다.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6계), 간음하지 말라(7계), 도둑질하지 말라(8계), 거짓 증거하지 말 라(9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10계)는 모든 계명들 즉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라는 것과 연결된 것이다.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가정이 무시되고 있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 하라는 말씀에서 일부일처제도와 가정의 기본단위가 제시된다. 부모나 자식 교육 때문에 이혼한다 는 것은 그러므로 비성경적이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 리라 하신 문화 명령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자녀들은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고통하 는 때에 일어날 악이라고 성경은 증언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되 주안에서 하라 하셨다.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 하셨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그 순종은 굴종이나 맹종과 달 리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순종이 의무라면 공경은 순종을 산출하 는 덕성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으나 공경하는 마음 은 같다. 공경은 무겁게 여기는 심정으로 부모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받드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절대순종을 해야 하지만 부모에게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순종할 수 없다. 부모보다 예수님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 한 부모가 범죄를 강요할 때 그 요구를 따를 수 없다. 자녀들이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어떤 경 우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것은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존경받을 수 없는 자리에 부모가 있다 해도 순종해야 한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 받을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 인해 낙심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랑과 격려를 하되 책망도 해야 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매를 아끼면 자식 은 망하다는 속담을 즐겨 사용했다. 그러나 회초리 옆에 사과를 놓으라 했다. 상도 주고 격려도 하는 것이 부모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양공급을 하듯이 인격을 키워줘야 한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린 익명의 어머니 같은 이들이 이 나라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 공경 받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아 지기를 기도한다.

-한국장로신문 2013년 5월 18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하나님 은혜가 모두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원 합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서 함께 뵙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는 7월16일(토)~17일(주) 열리는 사랑부 수련회와,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학부모들께서는 해당 자녀들을 꼭 동참케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710 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종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 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울 교 회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종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담임목사

Senior Pastor

" 변화의 계절 "

■ 마태복음 17:1-8

제32권 제28호

'변화'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변질과 변절로서의 부정적 변화와 진보와 발전 그리고 성숙이라 는 긍정적 변화를 동시에 말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이 진보와 성숙이라는 변화를 만드는 계절이 되도록 자 기 신앙을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빌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 확인이라는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십니다. 마17장에서는 변화산 위에서 본래의 모습을 제자 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본래 정체성을 확인하셨고 이에 따른 자기 행보를 용감히 게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변화와 성숙의 계절을 어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이 '변형되사'라는 말씀은 '본 질적 형체의 회복'이라고 해석합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 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 역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높은 산에 오르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도 본질의 재확인을 통해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향한 다짐을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기 본질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으면 무엇을 해 야 할 것인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에서 벗어나면 행 하는 모든 일들이 품위 없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정체성을 재확인합니 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듭난 새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 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규정해 줍니다.

2. 비전의 재확인

거룩한 변화의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논의하신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워의 길을 열며 세상에 하나님 나 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은 언제나 도전 받고 시험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비전을 재확인하고 이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님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뜻의 성취라는 본래적 비전을 소유하셨고 이 비전에 따라 인생을 운영하셨습니다. 사역 초기 사탄이 찾아와 세 가지 시험을 한 것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대신 다른 방법으로 역사에 기여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행을 만류했을 때에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하시며 사랑하 시는 제자의 눈물의 만류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고 산 위에 오르셔서 다시 이 비전을 재확인하십니다.

3. 산 밑으로 가시는 주님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라고 제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자들이 기다리는 현장으로 가셨습 니다. 거기에는 귀신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아이는 병든 몸과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2)아비는 그 아들 고치기 위해 눈물겨운 고생을 했지만 매일 절 망하면서 힘들어했고, 3)제자들은 큰 소리쳤지만 고쳐주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황홀 한 현장을 떠난 주님은 이 참담한 인간현실이 있는 현장으로 가셔서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 현장성을 요구합니다. 실천의 장이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것과 같아서 무익하며 논리에 치우친 바리새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관념적 신앙이나 조용한 교회생활에 익숙해있기 때문 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은 많은데 실제 직책을 갖고 사역현장에 계신 분들은 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에 전념을 다하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기희생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산 밑의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갑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안용곤 목사	안인호 장로
${\rm I\hspace{1em}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rm 1\hspace{1em}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	가나	스_E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96:1-3…	인	도	ス
	기 원	Invocation ·····	인	도	ス
*	찬 송	Hymn ·····9(1절)···	다	함	カ
*	신앙고	백 Apostles' Creed ······	다	함	ガ
*	성시교	독 Responsive Reading ······5(시 8)···	다	함	カ
*	송 영	Doxology ····· 1 ·····	다	함	カ
	기 도	Prayer ·····	맡	은	Ó
	찬 송	Hymn538(327)	다	함	ガ
	성경봉	독 Scripture Reading ·····마 17:1-8···	인	도	ス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カ
	봉헌 C	ffering ·····	다	함	カ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함	カ
*	봉헌기.	도 Offering Prayer ······	인	도	ス
	찬 양	Anthem ·····	찬	양	디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ガ
	설 교	Sermon"변화의 계절"…	손달	익 5	갂
*	찬 송	Hymn309(409)	다	함	カ
*	축 도	Benediction ·····	설	11/	ス
*	주기도	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ņ

_	오후	5 4시 30분 · 인도: 김익환 목사, 설교	간 쇤	달익 .	뫆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05:1-3	인	도	자
	찬	송 250(182)	다	함	께
	기	도	신자	곤	집사
E	찬	송 377(451)	다	함	께
= 라	성	경 행 28:1-15	인	도	자
'! 자	찬	양	찬	양	대
, 세	설	교 … "하나님께 감사하고" …	설	교	자
기 계	* 찬	송 384(434)	다	함	께

수요예배

주기도송 다 함 께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 인도: 안용곤 목사 ·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부: 전광환 권사	Ⅱ부 : 박혜정3 권사
성 경 행 28:16-3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담대하고 거침없이) "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1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부	할렐루야	유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들 앞어	서 변형도	!사 그 얼굴이
수요ㅣ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해 같이 빛	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
수요॥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어졌더라(마	17:2)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l 부 예 배	오전 9시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주 일 예 배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l 부예배	오전 11시	본당	
T # M M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모 임

- **1. 사라 전도회** / 10일(주) 3부 예배 후 602호
- **2. 리브가 전도회** / 10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7.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이번주 심방 일정

1-3, 4-10, 4-11, 5-12 다락방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진수3	7-3	안드레	최영은	김순자11	9-5	한나	본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922명	408명	2,330명	430명	2,396명	

🏆 2022년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강 사
영·유아부	7/16(토)-17(주일)	서울교회	찾았다, 하나님 나라! (막 1:15)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7/16(토)-17(주일)	서울교회	찾았다, 하나님 나라! (막 1:15)	허은 전도사
유년부	7/23(토)-24(주일)	서울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요일 5:4)	조동수 목사
초등부	7/22(금)-23(토)	아가페타운	교회가 좋아요 (마 16:18)	이대원 전도사
중등부	7/20/3\-21/30 \	아가페타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	정기성 전도사
고등부	7/29(금)-31(주일)	교회	(빌 2:5)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8/12(금)-13(토)	아가페타운	엑소더스 (출 19:5-6)	안용곤 목사
사랑부	7/16(토)-17(주일)	서울교회	함께 가는 사랑부 (아 2:13)	전재홍 목사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기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